

# 목포시 “대양산단 50% 책임분양” 무리한 약속...수백억 날릴 판

목포시가 대양일반산업단지의 책임분양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자비용으로만 수백억원을 날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대양산단 완공 후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책임지도록 돼 있는 금융약정서 때문이다.

목포시는 내년 준공 시점에 맞춰 부지 50%를 책임 분양하겠다는 약속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분양 확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트루프렌드대양제일차’와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 대출금으로 2909억원을 빌리는 금융 약정서를 체결했다. 시는 약정서를 통해 책임분양 매입확약의 1차 만기시점인 2016년 4월 2일자로 50%를 책임 분양하고, 총 대출금(2909억원)의 50%인 1454억원도 상환하기로 했다. 미분양시엔 목포시가 책임을 지고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시 일각에선 목포시의 이 같은 계약내용을 놓고 ‘굴욕적 계약’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1차 만기시점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양률은 17%에 머무르고 있다. 분양가 총액도 457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분납하도록 돼 있어 준공 시점인 내년 4월까지 분양률 50%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최근 대양산단 금융

분양률 17% 그쳐 대출금 1454억 내년 4월까지 상환 불가능

2019년 4월 일괄 상환 전환 추진...이자비용만 230억대 이룰 듯



목포시가 대양동 일원에 조성중인 대양산단 전경.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상환기간을 오는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확약변경은 애초 총 6년 범위 내에서 대출기준일로부터 3년6개월 시점인 내년 4월 총 대출금액 50%를, 4년 6개월 시점에는 32%, 6년 시점에는 18%를 각각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던 확약조건을, 대출 기준일로부터 7년 시점인 2019년 4월 2일 일괄 상환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이다. 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 등 금융비용은 목포시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확약변경에 따른 목포시의 이자부담만 총 230억원대(이자율 3.5% 적용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은 10일 오전 목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의

원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목포시가 교육지책으로 확약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 안이 승인되면 일단 2016년도 목포시 예산 운용만큼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가 대양동 일원에 조성중인 대양산단의 분양면적은 총 156만4667㎡로 분양가는 ㎡당 26만8015원이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소득 낮으면 기대수명도 짧다

전남 80.24세 ‘광역시도 최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해남 78.67세...서울 82.82세

과천시에 거주 중인 여성이 고령에 거주지를 둔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3.1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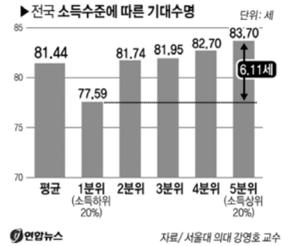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의 기대수명이 가장 길었지만 같은 서울에서도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서초구와 가장 낮은 금천구 사이에는 3.2년이나 차이가 났다.

이 같은 통계는 서울대 의대 강영호 교수(의료관리학연구소장)가 2009~2014년 건강보험의 방대한 가입자·사망자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왔다. 강 교수는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전국 252개 시군구의 기대수명을 산출해 10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2차년도 성과 공유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은 81.44세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과천시 거주자의 기대수명이 84.77세로 가장 높았으며 해남군이 78.67세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기대수명 차이는 6.11년이나 됐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82.82세

2009~2014년 빅데이터 분석결과 기대수명



자료/서울대 의대 강영호 교수

로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길었다. 반면 전남은 80.24세로 가장 낮았다.

기대수명은 여성(84.62세)이 남성(78.15세)보다 6.47년 높았는데, 이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성별 구분과 지역 구분을 함께 보면, 과천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87.32세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고령군 거주 남성(74.18세)보다 무려 13.14년이나 길었다.

강영호 교수는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의 건강 불평등의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국민 간식’ 순대·떡볶이

### 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구성지구서 중국 영화 ‘서북동도’ 촬영될까

〈진시황 불로초 전설〉

중 보배그룹 투자 MOU...‘공유수면 토지화’ 부처 이전 걸림돌

지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서남해안기업도시 내 구성지구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수면 토지화’ 문제가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0일 전남도와 구성지구 사업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 따르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최근 중국 보배그룹과 투자협약(MOU)을 하고 내년 4월 말까지 구성지구 내 660만㎡의 매입비 5%(200억원)를 선납하기로 했다.

보배그룹은 2200여 년 전 중국 진시황의 사자인 서북이 불로초를 찾았다는 전설을 담은 영화 ‘서북동도’의 촬영지로 부지의 절반을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에

는 한·중 FTA에 대비한 농업테마파크 설립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은 ‘공유수면 토지화’다.

공유수면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이들 부처가 전남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실시단계 용역을 발주, 이달 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 과거에 비해 다소 진전된 성과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관계자는 “공유수면 토지화 문제가 아직 남아 있

어 조건부로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과거에 비하자면)희망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6월 설립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주)보성, (주)한양,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전남도 등이 출자했으며, 구성지구(2096만㎡)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이다.

서남해안개발(주) 측은 공유수면 토지화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말까지 사유지 2369필지(464만4000㎡)를 협의대수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유커, 남도로 놀러 오세요”

광주시·전남·전북, 시안·쿤밍·난징서 홍보 마케팅

광주시는 전남·북,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시안, 쿤밍, 난징에서 호남권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침체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최대 규모의 관광전문박람회인 중국국제여유교역회에 참가해 광주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다.

시는 노인교류와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난징에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선진 의료시설 등 관련 분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복 입어보기, 남도음

식체험 등 다양한 K-컬처 인프라를 소개한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국제청소년교류관광상품, 정음식 음악 등 중국과 인연이 있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를 겨냥해 광주와 전남북이 상호 협력해 중화권 관광객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권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역량을 한데 모아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번 홍보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                  |             |        |
|------------------|-------------|--------|
| 중학생이상            | 취학어린이(초중학생) | 미취학어린이 |
| 떡갈비 12,500원      | 8,500원      | 5,000원 |
| 떡갈비, 떡갈비 14,500원 | 9,000원      | 5,500원 |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 부동산 시장 전망과 유망 투자지역 대분석 무료세미나

누구에게나 명쾌하고 속 시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특강

|      |                          |
|------|--------------------------|
| 장 소  |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
| 일 시  | 2015. 11. 12(목) 오후 2시/7시 |
| 문의전화 | (062) 383-1330(사전 예약)    |

강/의/내/용

- 1교시 2015년 이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 및 트렌드별 투자 전략 대응법
- 2교시 (1) 아파트의 향후 시장 흐름에 따른 미래가치 분석 및 투자 노하우 (2) 리스크를 피하는 제대로된 실전 부동산 투자법 공개
- 3교시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핵심 부동산 및 토지 투자처 매물 공개 및 수익성 분석 (2) 광주 수익형 부동산 선택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광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집영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